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발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통해 상상력 키우자



박기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원리는 크게 보아 지성교육과 감성교육의 두 축이다. 이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거의 모든 교육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론들은, 교육을 감성과 지성이라는 두 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교육자에게 있어서 상상력의 힘과 기능을 평가절하 내지는 무시해 왔다.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은 지 세 주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 국립 중앙박물관 내부에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문화원 내 두 개의 프로젝트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그 하나는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CAMP(Creative Art Making Program)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콘텐츠 OSMU 기획개발 연구 사업이다.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 이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거의 모든 교육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론들은, 교육을 감성과 지성이라는 두 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교육자에게 있어서 상상력의 힘과 기능을 평가절하 내지는 무시해 왔다.

우선 상상력은 세계와의 유려한 관계를 정립하고 미적 의식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유년기 과정에서 놀이는 그 효용성과 효율성에서 볼 때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정립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주제와 대상의 관계인 내적 세계와 외부 세계는 놀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서로 유동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는 쾌감을 주던 놀이에서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놀이의 주어진 규칙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 어린이는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때 상상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상상력은 단순히 현실 인식의 수단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탐색의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미적 의식에 의하여 어린이는 실존적 경험으로부터 환상의 세계로, 주위환경의 인식 과정에서 주변 풍광에 대한 명상의 단계로, 외부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음들로부터 음악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미적 의식에 의한 세계의 재발견 내지는 세계의 재구성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의 변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물론 상상력은 감성적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장을 넓혀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상상력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을 뒤집어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지사지를 실현하려면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지금의 나를 고수하면서 남의 입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스스로 남이 되어야만 역지사지가 가능해진다. 역지사지는 내가 여전히 나임을 고수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집어 내 속의 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내가 커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나'들이 존재한다. 이번 겨울 광주에 내리는 폭설은 어른들에게는 거리 교통을 막고, 사고를 일으키는 교통주범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온 세상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하얀 물감 덩어리라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이렇게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현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은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은 그 행동의 주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예측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처신들을 미리 가상으로 취해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그보다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수많은 유해 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미리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상상력의 윤리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어린이의 입장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시 바란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통학버스 사고 '안전불감증'이 빛은 인재

사흘 전 광주시 남구 모 여고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비탈길 사고'는 차량 결함도 함께 버스 위탁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빛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내리막 길에 정차중이던 통학버스가 뒤로 미끄러진 것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가.

특히 운전사나 학생의 안전을 무시한 채 수익만 올리려는 업체의 안전의식 결여가 화를 키웠다. 계약을 통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다수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노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타업체의 운전기사와 버스로 '뺨뺨'식 운영을 해왔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버스가 여고 측과 계약을 한 N운수업체의 버스가 아닌 C업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학교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사 김모씨가 주차장이 아닌 비탈길에 버스를 정차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당시 주차장에는

여유 공간이 있었고, 다른 통학버스는 그곳에 주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발인 통학버스가 안전 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만일 학생들이 버스에 탄 채 뒤로 미끄러져 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나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을 그렇게 역설해왔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전을 등한시한 광주시와 교육당국, 버스회사들의 합작품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통학버스는 한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불법 실태를 조사해 엄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정치논리 접근 안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와 부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과학벨트 유치에 뛰어들면서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과학벨트는 7년간 3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기초과학을 세계 정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과학산업을 활성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공약했다. 그래서 충청권은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권은 "과학벨트는 정치논리가 절대 안 된다"며 지역 유치를 발 벗고 나서고서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가 과학벨트의 정치적 접근을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공약'이나 '특정정치적 책기' 등 정치논리에 함몰된다면 과학벨트의 실재는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 경우 '제 2 세종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없이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21일 열기로 한 광주시와 당협회의를 놓고 오락가락한 것만 봐도 당론 채택이 설득력을 스스로 인정할 셈이다.

과학벨트 입지는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돼야 한다. 기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계와 접근성, 해외 과학 석학과 인력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인프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 담보성과 타당성은 타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학벨트 선정은 국가 미래와 국민적 공감대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2005년 미국 스탠포드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다. 취업안 수습과 6개월 시험인생이란 진단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파했다.

"죽음 앞에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남게 된다. 누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는 또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인만큼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옛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고 했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할 때 창조적인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으로, 잡스는 아이패드와 아이폰도 이를 실증해 보였다. 잡스가 또 다시 죽음의 문턱에 섰다. 2004년 이후 세번째 병가다. 이번에는 언제 복귀하겠다는 시점도 밝히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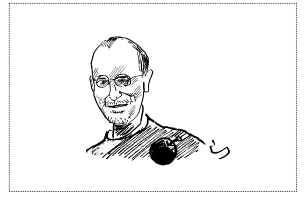
다. 그만큼 병세가 심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낳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다.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급락했고 경쟁업체인 삼성전자가 주가는 잠시나마 100만 원을 찍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잡스의 병가에 시선이 몰리는 진짜 이유는 미국만이 남게 된다. 누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는 또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인만큼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옛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고 했다.

한편으로 자본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는 듯 해 쓸쓸하지만 주식과 관계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도 잡스의 겸박은 간절하다. 무엇보다도 창조적 인물의 '3전4기'를 보고 싶고, 잡스 없는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스티브 잡스



중고칼럼



서달원

올 겨울은 무척이나 춥습니다. 소록도에는 겨울에 눈이 와도 살짝 지표면만 쌓였다가 햇볕이 나면 금방 녹아 언제 눈이 왔나 한데, 올 겨울은 그런 말이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눈도 많고, 날씨도 연일 춥습니다.

저는 소록도에서 사복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냥 답답히 사는 이야기 나누어보고자 해보겠노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소록도 가족들 이야기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만 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愁嘆場)이라 불렀다.' 글귀와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곳에 머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도로 저편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고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심정은? 원망이었을까?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

새로운 눈으로

소록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검문소 옆에 자리하고 있는 매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리 건너 소록도로 들어오시면 검문소가 나오는데, 검문소를 막 지나면 한 하운 시인의 시(詩) 제목에서 따온 '보리리리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그곳에 설치된 게시판에 눈길이 가 닿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로 나누어지는 경계선으로 1950년~1970년까지 철조망이 쳐있었다. 병원에서는 전염병을 우려하여 환자 자녀들을 직원지대에 있는 미감아 보육소에 격리하여 생활하게 하였으며, 병사지대의 부모와는 이 경계선 도로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되었다. 이때 미감아들과 부모는 도로 양옆으로 갈라선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만 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愁嘆場)이라 불렀다.' 글귀와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곳에 머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도로 저편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고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심정은? 원망이었을까?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관중

이상한과가 한반도를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연일 전국이 폭풍 열어붙었다. 이러한 한파원인이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인 북극이 온난화로 따뜻해져서 그렇다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강원지역의 극심한 가뭄, 열대야 신기록을 달성한 여름, 폭 폭탄이 떨어진 추석연휴, 계속되는 이상한과 등 우리 일상이 되어 버렸다. 기후변화는 가뭄이든 홍수든 간에 물 문제를 야기하고 물 관리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도 기후변

을해 저수량은 지난해보다 140%나 많은 양인데 이는 과학적인 물관리 덕택이다. 저수량도 풍부할 뿐더러 수질 역시 매우 청정한 상태이다. 댐 유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물 관리원이 상시적으로 수질을 감시하고 있다. 홍수가 전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홍수가 이후에는 댐내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깨끗하고 풍부한 상수원은 주암댐관리단의 혼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의 중요성을 알고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열정을 다하는 지역민들

기후변화시대의 보물 주암호

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속출이 예상되고 이는 물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전남지역 역시 기후변화와 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996년부터 취수를 중단한 영산강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濁水)때 4급수(농업용수 기준)를 넘어서며, 영산호는 5급수를 웃돈다. 영산강의 심각한 오염은 오염총량관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 자연히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은 오랜 화제이자 격정거리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지역의 식수원인 주암댐이 희소식을 전한다. 주암댐은 광주·전남지역 약 300만명에 달하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 올 1월 현재 총 저수량이 약 5억이다. 1억이 70~80만 인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니, 현재 저수량은 전남·광주지역 주민들이 1년간 사용하는데 충분한 양이다. (k-water 주암댐관리단장)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원으로 '깨끗한 주암댐 만들기' 행사를 꾸준히 펼쳐온 결과다. 이제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는 치수(治水), 생활용수와 공급용수를 공급하는 이수(利水)를 넘어 문화와 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친수(親水)로 바뀌고 있다.

물관리의 변화에 따라 주암댐은 맑은 물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유편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물로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물관리 변화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k-water 주암댐관리단장)

손님 위생 고려 노래방 마이크 덮개 사용해야

최근 아이의 생일을 맞아 밖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을 찾았다. 요즘은 계산하고 노래를 하려는 참라, 주인이 뽕기를 들고 들어오더니 마이크에 씌웠다. 뽕 싸우나 하고 봤더니 마이크의 입에 닿는 부분에 싸우는 스펀지형 덮개였다.

지금까지 회식이나 모임을 하면서 수차례 노래방에 다녔지만 이렇게 손님들의 위생을 위해 마이크에 덮개를 씌워주고 손님이 바뀔 때마다 갈아주는 걸 본 적이 없다.

노래방 마이크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때문에 침 등이 섞이면서 각종 세균이 서식하게 된다. 때문에 마이크를 자주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노래방에서는 하루에 몇 차례씩 손님이 드나들어도 그대로 방치해 이용자들은 항상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모든 노래방에서 스펀지형 덮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제2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획사업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